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790호 (2021년 12월 둘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전라남도] 신안 반월박지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떠올라	2
[광주광역시] 2022년 편시티(Fun-City) 광주 관광사업 풍성	3
[경기도] 이천 산수유마을 등 올해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6
[강원도] 기업형 강원 위케이션, CJ제일제당 디지털본부 대상 시범운영	7
[충청북도] 2022년 정부예산 7조 6,703억 원	8
[충청북도] 2021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12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개최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14

[전라남도] 신안 반월박지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떠올라

-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로 '4계절 보라색 꽃피는 퍼플섬' 단장

- 전라남도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퍼플섬’으로 꽃단장한 신안 반월·박지도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World Label)’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올해 시작한 ‘세계관광우수마을’ 선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홍보,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 세계의 각 마을을 평가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최우수 관광마을’, ‘최우수 관광마을 개선 프로그램(Upgrade Program)’, ‘최우수 관광마을 네트워크 (World Network)’로 나눠 선정한다.
- 이 가운데 제일 높은 등급인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세계 75개국 170개 마을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펼친 결과 신안 반월박지도를 비롯해 32개국 44개 마을이 선정됐다.
-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2015년부터 반월박지도를 ‘사계절 보라색 꽃피는 퍼플섬’을 주제로 2019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해 개발했다. 그 결과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고, 미국 CNN, 폭스 뉴스에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았다.
-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환태평양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의 아름다운 섬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퍼플섬과 함께 해양자원이 전남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남도는 퍼플섬의 ‘유엔 세계관광 최우수마을’ 선정이, 해양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2022~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925년 조직된 국제관광연맹(IUOTO)을 개편해 1975년 설립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관광 진흥과 개발, 관광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총 155개 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 400여 지부(민간단체·교육기관·관광협회·지역관광기관 등)가 가입해 있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0) | 게시일 : 2021.12.06.)

[광주광역시] 2022년 편시티(Fun-City) 광주 관광사업 풍성

- 충장축제 월드페스티벌로 확대, 선비 풍류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청소년 예술여행거점 조성 및 충장로 케이팝 거리 활성화
- 국내 관광객 유인 붐업 프로그램 운영...무장애 시티투어버스 등

□ 광주광역시는 노잼도시에서 탈피해 재미있는 도시, 편시티(Fun-City) 조성을 위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편시티 조성은 도시의 볼거리, 즐길거리 강화를 위해 광주시 전 부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관광분야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시도한다.

■ 충장 월드페스티벌, 길 위에서 즐기는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장

□ 광주를 대표하는 추억의 충장축제를 지역 축제 범위를 넘어선 세계적인 축제로 진화시킨다.

□ ‘(가칭)충장 월드 페스티벌’은 기존 인기 프로그램인 ‘추억의 테마거리’와 더불어 ‘버스커즈 월드컵 인 광주’, ‘충장 월드 퍼레이드’ 등을 연중 진행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선비들의 풍류문화를 주제로 길 위에서 즐기는 ‘풍류 온 더 스트리트’ 관광체험 프로그램 무등산 호수생태원 일원에서 운영해 누정·생태 자원과 퍼포먼스, 체험 등 선조들의 멋과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즐길거리를 예술관광과 결합된 신평류 체험 관광 콘텐츠로 기획한다.

■ 활기 넘치고 더욱 스마트해진 관광생태계 조성

□ 국내외 청소년과 청년들을 타겟으로 한 아시아 신세대(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을 조성한다.

□ 광주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해 가족 단위 국내 예술여행 관광객을 우선 유치하고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향후 케이팝(K-POP)을 매개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내외 청소년들이 광주를 찾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교류형 체험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 MZ세대가 편리한 모바일 환경이 갖추어진 주요 관광지에서 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예술여행마을도 시범 구축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 ☐ 충장로 내 ‘케이팝(K-POP) 거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고 화려한 빛들을 수놓아 도심 야간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할 예정이다.
- ☐ 국내외 팬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케이팝 팬아트 공모전’과 ‘케이팝 관광기념품’은 광주 관광의 핵심 홍보콘텐츠로 활용하고 케이팝 행사를 개최해 충장로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 상무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 인접지인 서창한옥 마을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한옥문화관 주변과 만귀정을 엮어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백마산 및 영산강변 일대 일출·일몰 전망 지점 및 소원성취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 서창지역을 관광명소화해 인근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활성화하고 마이스(MICE)행사 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 이와 더불어 고봉 기대승선생의 삶과 학문을 중심으로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복합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 ☐ 선비문화 체험복합관은 편의성과 전통성을 겸비한 체험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교류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고유문화와 정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 국내 관광객 유인 위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기획 추진
- ☐ 단계별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관광수요가 국내 관광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는 국내 관광객들의 광주 방문 횟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홍보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다.
- ☐ 2022년 ‘광주 방문의 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광주 여행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유명 연예인과 함께 하는 ‘광주 관광 붐업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해 지역 및 전국 단위 공중파를 통해 송출하기로 했다.
- ☐ 방송 콘텐츠(영상, 사진, 노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용 콘텐츠로도 제작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주를 찾도록 할 예정이다.
- ☐ 실용성과 디자인을 갖춘 광주만의 대표 관광상품을 제작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광주를 추억케 하고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공모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민간주도로 개발된 제품들은 판로 구축을 위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 또 보다 편리하고 재미있는 도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2석, 디지털 가이드(다국어, 수어) 기능을 갖추고 다채널(유선, 인터넷, 모바일) 예약 발권시스템을 제공하는 무장애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
-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그간 문화예술과 여행 비즈니스가 함께 성장하는 광주관광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해왔다”며 “앞으로 보다 활기 넘치고 더욱 편리해진 관광을 통해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 받는 ‘관광도시,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20) | 게시일 : 2021.12.09.)

[경기도] 이천 산수유마을 등 올해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사업 2021년 컨설팅 성과보고회 개최
- 이천, 연천, 가평 3곳 마을 주민들의 성과 발표 자리 마련
- 성과평가 결과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제공 예정

- 경기도는 10일 경기관광공사에서 이천 도립리 산수유마을 등 올해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진행된 3개 지역 주민과 함께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 앞서 도는 지난 4월 이천 도립리 산수유마을, 연천 삼곶리 임진강 일원, 가평 백둔리 백둔천 일원 등 3곳을 ‘2021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발표한 바 있다. 도는 3곳에 사업비 등을 지급해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지’를 육성했다.
- 이날 이장을 비롯한 마을 대표, 생태관광 전문가,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 주민이 사업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우선 이천시 산수유마을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산수유마을, 가을물 들다’ 행사주관을 운영했고, 전통 숲을 복원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 숲 체험을 진행했다. 11월 14일에는 산수유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있는 산수유밥상’ 요리 경연 대회도 개최하였다.
- 연천군은 임진강 유네스코자원과 비무장지대(DMZ)·민통선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한탄강지질공원탐방과 평화습지원 견학 등 가족 단위 소규모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가평군은 향아리바위에서 백둔천을 따라 올라가는 청정계곡 트레킹(자연을 느끼며 여행)을 주제로 한 ‘풍당 트레킹’ 활동 및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이용한 도시락 체험 등을 발표했다.
-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도민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도민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생태관광거점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올해 3곳과 ▲화성 우음도 ▲평택 바람새마을 ▲고양 장항습지 ▲파주 질오목마을 ▲포천 한탄강 생태문화체험센터 ▲가평 아침고요수목마을 등 총 9곳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관광과(031-8008-3334) | 게시일 : 2021.12.10.)

[강원도] 기업형 강원 위케이션, CJ제일제당 디지털본부 대상 시범운영

- 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은 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 디지털사업본부와 함께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평창군과 양양군 일대에서 ‘기업형 강원 위케이션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 CJ제일제당 디지털사업본부는 최근 IT·디지털 기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업형 강원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시범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30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이들은 총 3회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과 양양군 일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경험한다.
- 이번 기업형 강원 위케이션에는 업무를 마친 여가 시간에 ‘요트체험’과 ‘달빛요가’ 등 체험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이는 올해 3월 말부터 추진한 사후 만족도 데이터 분석에 따라, 참가자들이 서핑과 요가 등 강원형 로컬체험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양양군의 경우 체험프로그램 일부를 지원하였다.
- 강원도관광재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강원 위케이션’은 검색량이 사업초기에 비해 1,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재단은 코로나19 위기 속 국내관광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강원도 위케이션 유치마케팅 및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강원도관광재단 국내마케팅팀 최동석 팀장은 “이번 대기업 대상 위케이션 시범사업은 기존 개인에서 기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강원도를 국내 최적의 위케이션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게 할 것”이라며,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과 천혜 자연 기반의 언택트 최적화 지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위케이션 : 산 또는 바다 등의 휴가지에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형태 및 여행 트렌드

[충청북도] 2022년 정부예산 7조 6,703억 원

- 대형SOC 조기개통 및 인력양성 전진기지 구축

□ 지난해 6조 8,202억 원 대비 8,501억 원 증가. 12.4% 증

* 국가예산 558조 원 → 607.7조 원, +49.7조 원, +8.9% 증

□ 대형 SOC 조기개통과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 (대형 SO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200억 원, 중부내륙선 철도 +394억 원 등
(인력양성) 반도체 실무인력양성 융합센터 4.4억 원, 노인전문교육원 3억 원 등

■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의미

① 충북 정부예산 8조 원 시대 발판 마련(7조 6,703억 원)

○ 충청북도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예산에 지난해 보다 8,501억 원이 증가한 7조 6,703억 원을 확보하여 7조 원 시대를 지나 8조 원 시대 발판을 마련했다.

○ 올해 확보한 2022년도 예산은 지난해 6조 8,202억 원에 비해 12.4% 증가했고, 국가예산 증가율 8.9%(558 → 607.7조원)를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19) 54,539억원(6.0% ↑)→('20) 60,854억원(11.6% ↑)→('21) 68,202억원(12.1% ↑)→('22) 76,703억원(12.4% ↑)

○ '22년 정부예산 7조 6,703억 원은 '12년 3조 6,880억 원 확보에 이어 10년만에 2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충북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② 전략적 대응으로 공모사업 대거 선정

○ 매년 늘어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지침」 제정, ▲중점공모사업 선정, ▲공모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매월 정기 추진상황 보고회 등 체계적·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및 공모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전년대비 82건 증가한 성과를 얻었다.

※ 공모사업 선정 : ('21) 147건 2,492억원 → ('22) 229건 2,690억원(+82건, +198억원)

〈 주요 공모사업 〉

-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원(총사업비 304억원)

- 2022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9억원(총사업비 302억원)

- 3D 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50억원(총사업비 186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33억원(총사업비 150억원)
- 도시재생 뉴딜 광역공모사업 59억원(총사업비 240억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5억원(총사업비 140억원)

③ 국회의원, 중앙부처, 시장·군수, 도, 시군이 하나되어 이룬 성과

- 이러한 성과는 지역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이종배 예결위원장, 맹성규, 이만희 예결위간사, 충북출신 중앙공무원, 시장·군수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이며,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부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 전직원이 하나되어 전략적 분석과 역할분담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고, 국회 및 재정당국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 특히, 국회중액의 선봉장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충북 출신 의원(이종배 의원)이 배정되어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 올해 국회중액의 세부성과

① SOC 조기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던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23년 조기개통을 위해 +200억 원을 추가로 증액시켰고, 중부내륙철도는 '23년 개통을 위해 +394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대형 SOC사업의 조기건설을 통한 주민숙원 해결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 대형SOC사업 외에도, 천안동면~진천 국도건설 +57억 원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음성~충주 신니 국지도 건설 2억 원,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2억 원의 설계비도 반영했다.

〈 주요사업 〉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648억원(총사업비 8,375억원, 국회중액 +200억원)
-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4,283억원(총사업비 24,867억원, 국회중액 +394억원)
- 음성~충주 신니 국지도 건설 2억원(총사업비 346억원)
-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2억원(총사업비 942억원)
- 천안동면~진천 국도 건설 225억원(총사업비 1,314억원, 국회중액 +57억원) 등

②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진기지 구축

- 미래 핵심산업의 기초인 반도체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실무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4.4억 원,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인 교육을 통한 노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3억 원, 숙련기술인 양성 및 청년 지원사업 수혜 확대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북부지사 신설 4.55억 원 반영 등 충북이 청년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인력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사업 〉

- 반도체 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4.4억원(총사업비 135.5억원)
-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3억원(총사업비 496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북부지사 신설 4.55억원(총사업비 6억원) 등

③ 김치종주국으로써의 국산김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기반 확대

- 김치원료 저장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산김치 소비를 증가시켜 김치종주국으로써 국산김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5.8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 또한, 가뭄 및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량 감소 등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영농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진천 백곡문백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3억 원, 충주 동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3억 원을 반영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 주요사업 〉

-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5.8억원(총사업비 290억원)
- 진천 백곡문백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3억원(총사업비 398억원)
- 충주 동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3억원(총사업비 469억원)
-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건립 3억원(총사업비 351억원)
-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 3.5억원(총사업비 231억원) 등

④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육성

- 폐철도와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한 친환경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3억 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속리산 생태탐방원 4.5억 원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 했다
- 또한, 콘텐츠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사업 48억 원을 반영하여 충북의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주요사업 〉

-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3억원(총사업비 180억원)
- 속리산 생태탐방원 4.5억원(총사업비 150억원)
-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조성 3억원(총사업비 80억원)

-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48억원(총사업비 200억원)
 - 보은 법주사 미륵전 보수 3억원(총사업비 40.5억원) 등
- ⑤ 그 밖에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7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보완(5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실증단지 구축(10억원),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15억원), ▲가락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 충청북도의 2022년 분야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 복지·여성분야	2조 1,346억원(27.8%)	▶ SOC분야	1조 7,434억원(22.7%)
▶ 산업·경제분야	1조 5,093억원(19.7%)	▶ 농업·산림분야	9,971억원(13.0%)
▶ 환경분야	6,368억원(8.3%)	▶ 소방·안전분야	2,309억원(3.0%)
▶ 문화·관광분야	1,980억원(2.6%)	순이다.	

- 충청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신규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하여 지역주요현안 사업을 대부분 반영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 적은 예산의 증액규모 등으로 미반영됐지만,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도에는 올해 미반영된 사업은 물론 정부정책에 부합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했다.

(충청북도, 예산담당관(043-220-2210) | 게시일 : 2021.12.06.)

[충청북도] 2021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항공·관광산업 회복 방안 및 대응전략 모색

□ 충북도는 8일 14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항공과 관광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무관중 TV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했다.

■ 코로나19 이후 충북 관광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

□ 먼저, 주제발표는 충북연구원 성보현 연구위원이 ‘코로나19와 충북관광’을 주제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지역관광의 변화에 대비한 충북 관광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을 소개했다.

□ 이어 ▲안전한 청정관광 지향 지속 ▲국제관광 목적지로서 충북 경쟁력 강화 ▲충북관광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전환 대응 ▲충북 관광행정 대전환 및 역량 강화 등과 특히, 충북 관광 행정 대전환을 주도할 지역관광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해 도내 관광생태계 지원, 관광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충북연구원 정삼철 수석연구위원이 정책토론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청주대학교 김재학 교수, 충청대학교 민양기 교수, 에코메아리 지역문화연구소 박현춘 대표가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항공·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청주대학교 김재학 교수는 충북 오송에 준공될 전시컨벤션센터에 의미가 크라며, ‘유니크베뉴*’로 전환을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니크베뉴: 고유지역의 문화, 특색을 테마로 한 고택, 마을 등의 장소

□ 또한, 충북의 관광명소를 메타버스로 구현시켜 잠재관광객의 이용을 촉진하고 실제 충북 찾게 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충청대학교 민양기 교수는 환경 변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선제적이고 미래 지속가능한 관광/축제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는 내용의 MZ세대 관광수용 전략과 메타버스, 고정관광, 소형, 주중, 연중, 공간 분산 수용, 관광 빅데이터, 야간관광, 위케이션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 에코메아리 지역문화연구소 박현춘 대표는 지역의 빈집, 유휴시설을 충북형 위케이션 프로젝트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충북이 탄소중립형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희토지/시설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충북관광 도약과 코로나 일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 가지 방안

- 충북연구원 정삼철 좌장은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현실화 되고 있는 코로나 일상(With Corona)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관광지도와 관광트렌드 변화 인식 및 능동적 상황변화에 걸맞은 선제전략 모색 ▲지역 관광업계의 현재 위기를 미래 기회로 전환해 나가려는 주도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미래 지속 성장 가능한 충북관광 발전을 위해 그린관광, 디지털관광, 안심관광 실현 관광정책의 혁신적 대전환 ▲코로나 일상의 변화된 뉴노멀 관광 시대에 충북의 특징점을 활용해 외연적 관광시장 확대와 글로벌 관광목적지로의 경쟁력 강화로 충북 관광 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길 바란다.”라며,
- “이와 같은 위기가 충북 관광에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충북 관광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항공·관광산업 변화와 대응에 관심이 있는 도 및 시군 공무원, 충북도민 누구나 TV 녹화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방송 송출(예정) : 12.17.(금) 18:50 / CJB

(충청북도, 관광항공과(043-220-3963) | 게시일 : 2021.12.08.)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개최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재구성 후 첫 회의, 다양한 경남관광발전 방안 제시
- 관광흐름 변화 '가족·연인중심, 산·해양레저, 오토여행, 안전여행, 워케이션 인기'

□ 경상남도는 지난 3일 경남도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10일 자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재구성된 이후 첫 회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새로운 관광환경과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준비와 노력에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좋은 방안들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관광 흐름에 따른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주요 사업들을 제안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흐름 변화〉

□ ▲ 코로나19 이후 희망하는 여행 키워드 '자유', '가족', '휴식', '바다', '편안함', '맛집'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 차지 ▲ MZ세대*의 관광 수요 증가와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통한 관광후기 전파 ▲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난해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 감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만족도는 높음(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 인용)

* MZ세대 :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

〈변화된 흐름에 따른 관광 활성화 접근 방법〉

□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속 추진 ▲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에 인기 있었던 관광지 활성화 전략 필요 ▲ 위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광자원 발굴 ▲ 지속적 관광, 탄소 중립형 관광의 시작 필요 ▲ 코로나 역설(패러독스)을 활용한 경남관광 이미지 재설정 ▲ 지역맞춤형 관광으로 새로운 전환 필요 ▲ 비대면 여행 지속과 신관광상품 개발의 양면(투트랙) 정책 추진 필요 ▲ MZ세대를 목표로 한 관광 마케팅 필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방안〉

□ ▲ 펜션 등 숙박시설 개선 ▲ 음식관광 증가에 따른 대비책 마련 ▲ 유흥시설 관광자원화 사업 ▲ 워케이션 관광상품, 치유형·장기체류형 관광상품 지속 개발 ▲ 지자체별 다양한 체험·먹거리·신혼여행 상품 개발 ▲ 산과 바다를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등 많

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에,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경남관광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시대흐름에 맞는 변화된 관광시책으로 개발하여 빠른 시일 내 관광업계 종사자는 물론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관광진흥과(055-211-4613) | 게시일 : 2021.12.06.)